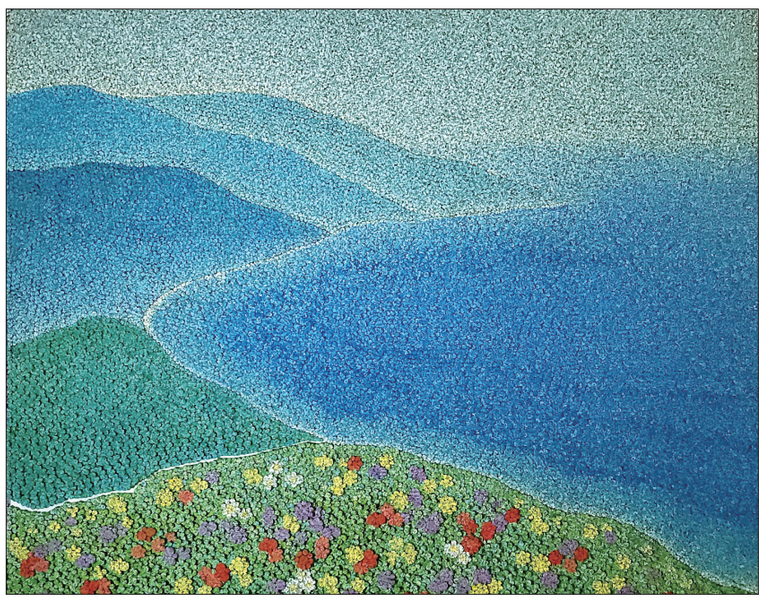
진정한 '꽃길'은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허회태 작가 '내가 품은 꽃길'展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군포 Eg갤러리서…28점 전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내가 품은 꽃길1(163x130cm,한지 및 혼합재료,2024).

서예와 회화를 합병한 새로운 예술 장르 이모그래피(Emography)의 창시자 허회태 작가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3개월간 군포 Eg갤러리에서 개관 기념 개인전 '내가 품은 꽃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허 작가는 감성과 형상에 따른 색의 질감을 입체적, 회화적으로 표현해 생명체의 존재가치를 '꽃길'로 담아낸 작품 28점을 통해 그의 창작 철학과 예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선보인다. 수많은 꽃이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에서 신비한 생명의 파장이 전해지는 울림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허 작가에 따르면 그의 작품은 어떤 고정된 조형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평면과 입체가 조화를 이루는 컴바이닝아트(조합예술)로서, 서예와 미술이 융합된(이모그래피) 독창적인 형식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그의 작품은 무한한 서정성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축하며 인간, 문명, 자연의 조화를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세계는 크게 네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허 작가는 사유와 염원을 담은 좋은 글을 한지에 붓글씨로 쓰고, 이를 바탕으로 입체 조각을 만들어 평면과 입체가 결합된 작품을 완성한다. 둘째, 붓글씨로 쓴 글 하나하나를 세포와 같은 생명체로 여겨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모스컬퓨처, 즉 감성과 조각이 결합된 3D 작품을 선보인다. 셋째, 허 작가는 일관되게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작품을 형상화한다. 넷째, 감상자들을 꽃길로 인도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진정한 꽃길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속에서 피어난다는 깊은 의미를 전한다.

개인전 '내가 품은 꽃길'에서는 허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꽃길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작 '내가 품은 꽃길1(163x130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4)'은 작업 시간만 1여 년이 소요된 작품이다. 붓글씨로 쓴 3만여 개의 조각들로 구성됐다. 꽃길에 자연과 인간사의 온갖 풍상과 스토리가 소리 없이 무한히 스며있는 것이 특징이다. 허 작가는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터득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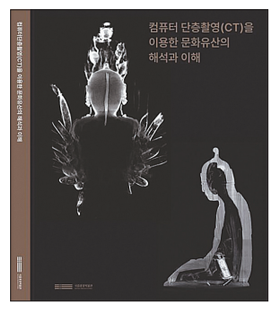
이 외에도 삼투압 작용으로 조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꽃길을 밝히는 해(65×91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4)', 각기 다른 사회, 계층을 품고 있는 '무지개빛 꽃길(163×130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4)', 자유 곡선으로 시각적 쾌감을 수반하는 '내가 품은 꽃길4(80×130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3)', 기계문명과 자연의 대위법적인 고찰을 담은 '내가 품은 꽃길5(100×90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4)' 등이 공개된다.

허 작가는 "좋은 작품이란 미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대중의 내면까지 끊임없이 울림을 주는 작품이어야 하고, 미의 세계를 만들어 공감하는 사회적 기능과 매너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의 시작은 각기 다른 기억의 수많은 생명체가 서로에 기대어 피어나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유와 명상이 담겨 있는 우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찾는 길이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과 희열을 갖는 것이 진정한 꽃길이다"고 말했다.

한편 허회태 작가는 5세부터 서예와 한학을 시작해 1995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상명대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서예, 전각, 한국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익혔다. 융합예술인 이모그래피를 창시하고 현대조형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 5개 갤러리 초대 순회전을 가졌고, 국내에서는 20여 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CT 이용한 문화유산 해석과 이해' 발간

국립중앙박물관, 13점 결과 수록
진열 스님 작품 추정 목제불입상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해석과 이해 표지.

컴퓨터 단층촬영(CT)으로 목조불상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최근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해석과 이해'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3점의 CT 촬영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불교유산의 제작 기법과 보존 상태를 비파괴 방식으로 정밀 분석한 점이 주목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7년부터 국내 최대 전압의 CT 장비를 도입해 현재까지 770여 건의 문화유산을 조사해왔다. 보고서에는 18세기 진열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목제불입상을 비롯해 금속, 도자기, 목재 등 대표 재질의 내부 구조, 제작 기술·특성 등이 담겼다.

목제불입상(木製佛立像)은 CT 촬영을 통해 통나무의 내부를 파내어 제작된 점이 확인됐다. 얼굴과 귀가 별도로 결합된 방식이며, 가슴 부분에서는 거멀쇠를 사용해 나무의 갈라짐을 방지한 흔적이 발견됐다. 또 오른쪽 어깨와 다리 상단부에서는 보강을 위해 사각형 목재가 삽입된 부분도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평양 오야리에서 출토된 금장식철제환두소도(金裝飾鐵製環頭小刀)와 고려시대 청자어룡모양주전자(靑磁魚龍形注子) 등의 부식 상태와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CT 분석 결과가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0월 박물관보존과학센터 개관을 앞두고 원통형 CT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CT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한 원통형 CT는 목재 문화유산의 나이테 분석을 통한 연대기 작성 등이 가능해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원통형 CT의 도입은 단순히 외형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제작 기법과 재료, 손상 상태, 내부 구조 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내영 기자

한국선학회 제13대 회장에 향산 스님

학회 이사회서 만장일치 선출
"선불교 학문적 외연 넓히겠다"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향산 스님〈사진〉이 한국선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선학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향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국선학회 신임 회장 향산 스님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향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회기 동안 한국선학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전 회장 혜명 스님, 학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저는 안으로는 선학 관련연구의 초석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선불교의 학문적 외연 확장을 통하여 현시대의 다양한 주제와 접점을 찾는 학회 본연의 목적을 유지, 보존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통과 시대정신의 공존을 모색하며 한국 선학의 기둥이 더욱 굳건해지고 현시대 속에 뻗어나가는 학문의 가지들이 더욱 건강히 생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향산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중앙승가대를 거쳐 일본 하나조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24년부터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및 (사)월정사 화엄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초기 유가행 유식학파의 명상수행에 관한 주제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선학회는 6월 13일 '선종의 인간관'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의 선사상이 현 시대가 던지는 화두에 어떻게 답할 수 있으며, 시대정신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한국선학회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후원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 가치 알릴 사찰 모집합니다"

문화사업단, 2월 21일까지 접수
지역 연계 홍보행사 선정 · 지원

청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담긴 사찰음식의 가치를 널리 알려갈 사찰을 모집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불교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사찰음식 홍보행사' 운영 사찰을 선정·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44개 사찰에서 사찰음식 체험, 전시, 강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보다 많은 사찰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사찰음식 홍보행사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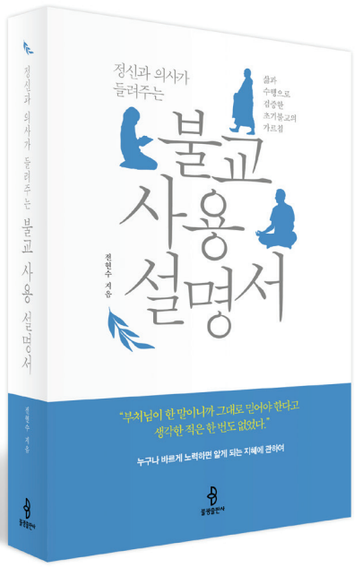
지원사업 대상은 지원금 대비 20% 이상의 자부담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찰이다. 다만 사찰음식과 관련 없는 행사나 법회·기도 등 기본 신행활동과 연계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찰은 조계종 및 사찰음식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2월 21일까지 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검토와 2차 지원심사를 거쳐 3월 중 결과가 최종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02-2031-2054)으로 문의하거나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내 최초 '불교정신치료'의 장을 연 전현수 박사,
40년간 공부하고 수행하며 검증한 불교를 말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크고 작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괴로움은 점점 줄어든다. 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괴로움이 있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괴로움은 계속되었다. 이때는 이래서 괴로웠고, 그때는 그래서 괴로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니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 본문 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삶과 수행으로 검증한 초기불교의 가르침

전현수 지음 | 640쪽 | 30,000원



'마음을 씻는 경전' 세심경洗心經『주역』
핵심만 알아도 세상 문리가 트인다!

동양철학 최고 고전『주역』의 인문학을 섭렵하는 순간,
세상 이치와 통하는 인생 경영의 키를 쥐게 된다!



세계적 인물들이 극찬한『주역』

『주역』을 가죽끈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읽은 공자
"배우게 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

『주역』을 500번 탐독한 탄허 스님
"불교를 제외한 최고의 철학!"

『주역』과 무의식을 접목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책"

마음을 씻고 세상을 꿰뚫는 경전
주역의 눈

이선경 지음 | 272쪽 | 20,000원

저자 강연회 〈내 인생을 위한 주역 사용법〉 강사: 이선경 (한국주역학회 회장) 일시: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